

6강 주제 파악

Gateway 대중교통에서의 운행 빈도

Emphasizing speed over frequency can make sense in contexts where everyone is expected to plan around the timetable, including peak-only commute services and very long trips with low demand.

In all other contexts, though, it seems to be a common motorist's error.

Roads are there all the time, so their speed is the most important fact that distinguishes them.

But transit is only there if it's coming soon.

If you have a car, you can use a road whenever you want and experience its speed.

But transit has to exist when you need it (span), and it needs to be coming soon (frequency).

Otherwise, waiting time will wipe out any time savings from a faster service.

Unless you're comfortable planning your life around a particular scheduled trip, speed is worthless without frequency, so a transit map that screams about speed and whispers about frequency may simply be planting confusion.

'빈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것은, 가장 불비는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통근 서비스와 수요가 적은 아주 긴 거리의 운행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시간표에 맞춰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에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다른 상황에서, 그것은 운전자의 흔한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도로는 항상 거기에 존재하기에, 그것(도로)의 속도가 그것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교통은 그것(대중교통)이 곧 도착하는 경우에만 거기에 존재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차가 있다면 여러분은 원하는 어느 때든지 도로를 이용해 그것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은 여러분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존재해야 하고(운행 시간대의 범위), 그것은 곧 도착해야 한다(운행 빈도).

그렇지 않으면, 기다림으로 인해 빠른 서비스로 절약된 시간이 모두 없어져 버릴 것이다.

여러분이 특정한 운행 일정에 맞춰 삶을 계획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면, 속도는 빈도 없이는 가치가 없으므로, 속도에 대해선 소리치고(강조하고) 빈도에 대해선 속삭이는(드러내지 않는) 교통 지도는 단지 혼란을 심어줄 수도 있다.

1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의 기준

In the United States, the practice of permitting aliens to vote could be seen as compatible with the idea of an exclusionary citizenship, but that is a hard balance to maintain.

If the vote, of all rights, is in the hands of noncitizens, why should they not count as citizens, and the entire distinction between resident alien and citizen be abandoned? Indeed, something like this thought probably lay behind the disappearance of alien voting: with universal adult citizen suffrage after 1920, the only way to maintain an exclusionary kind of citizenship was to restrict the vote to citizens and not residents.

But no theory of "active" democracy can countenance this distinction: the laws concerning our common life must be made by all those who are taking part in it, and residence is the only convincing test of whether someone is taking part — as is understood almost universally when it comes to questions of which citizens should have a voice in local government.

2 위치에 따른 물체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When people are asked what any painting hanging on a gallery wall means, no matter how strange it might appear, as is the case with most abstract-expressionist paintings, they tend to find meaning in it because it is located in a gallery.

Consider a soda can found thrown away on a city street.

If we were to come across this item on the street, we would no doubt view it as a piece of garbage or rubbish.

But if we saw the very same object on a pedestal, displayed in an art gallery, signed by some artist, and given a title such as "Waste," then we would interpret its meaning in a vastly different way.

We would, in fact, be inclined to interpret it as an artistic form, desecrating a throw-away or materialistic society.

Clearly, the can's location on a sidewalk versus its display on a pedestal in an art gallery will influence how we will interpret it.

미국에서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행은 배타적 시민권 개념과 양립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유지하기 어려운 균형이다.

만약 모든 권리 중에서 투표권이 비시민의 손에 있다면, 왜 그들이 시민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하며, 왜 거주 외국인과 시민의 완전한 구분이 폐지되지 않아야 하는가?

실제로, 이 생각과 같은 뭔가가 아마도 외국인 투표 폐지의 배경에 있었을 텐데, 1920년 이후 성인 시민에게 보통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배타적 형태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권을 시민으로 제한하고 거주자에게는 그러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적극적' 민주주의 이론도 이 구분을 지지할 수 없는데, 우리의 공동생활에 관한 법은 그것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고, 거주는 누군가가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일하게 설득력 있는 기준이며, 이는 지방 정부에서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가져야 할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사람들은 미술관 벽에 걸려 있는 어떤 그림이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을 받을 때면, 대부분의 추상 표현주의 그림이 그러하듯, 그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 수 있더라도 그것이 미술관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림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다.

도시 거리에 버려져 발견된 탄산음료 캔을 생각해 보라, 만약 우리가 거리에서 이 물건을 우연히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쓰레기 조각이나 폐품으로 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똑같은 바로 그 물체가 받침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어떤 예술가의 서명이 있으며, '폐기물'과 같은 제목이 붙어 있다면, 그때 그것의 의미를 매우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을 예술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낭비적인 또는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 캔이 인도 위에 놓여 있는지 아니면 미술관의 받침대 위에 전시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인간의 인지에 대한 컴퓨터 모델의 한계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as a model for the operations of the human mind may well prove to be as limited as an earlier fascination with behaviorism.

Psychologists have already begun to recognize the flaws of the mind-as-computer metaphor.

Some have turned to cultural anthropology as a way of understanding the factors outside any particular individual's brain that help the individual make sense out of the world.

Others, such as Jerome Bruner, one of the founders of cognitive psychology, find that the computer analogy carries with it an unfortunate shift "from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o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Bruner's reflections on the limits of the machine model lead him back to a humanistic emphasis on narrative and story-telling as essential ingredients in understanding human cognition, a fascinating intellectual journey that reveals both the power and the limits of computers as guides to the way we think.

인간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는 모델로 컴퓨터에 의존하는 것은 아마도 과거 행동주의에 매료되었던 것만큼이나 제한적임이 드러날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미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것의 결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어떤 특정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돕는, 그 개인의 두뇌 밖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문화 인류학에 눈을 돌렸다.

인지 심리학의 창시자 중 한 명인 Jerome Bruner와 같은 다른 이들은 컴퓨터에 비유하는 방식이 "의미의 '구성'에서 정보의 '처리'로"라는 불행한 전환을 수반한다고 본다.

기계 모델의 한계에 대한 Bruner의 성찰은 그를 인간의 인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인으로서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본주의적 강조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데, 이는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대한 안내자로서 컴퓨터가 지닌 힘과 한계를 모두 드러내는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다.

4 문학이 활성화하는 상상력

In the escape that reading literature provides through vicarious identification and comparison with other lives, places, and times, we activate our imagination, that uniquely human ability to explore an alternative set of ideas and experiences that are outside our present environment and that may not even be real. As opposed to perception that receives and processes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 light, sound, shape — and finds meaning in it — a sunset, a symphony, a house — in imagination, the process is reversed. Translating the words we read into what they signify, we populate an inner world in which imagery is created from the memory. For example, we read "house" and picture a representation of a house from memory. It is our imagination, the complex interweaving of perception and memory that literature activates, releasing a latent creativity that pleases. The writer may provide the blueprint, but the reader builds literature's many rooms, and like any satisfying occupation, literature gratifies our imaginative and creative abilities.

문학을 읽는 것이 다른 삶, 다른 장소, 다른 시대와의 대리적 동일시와 비교를 통해 제공하는 도피 속에서, 우리는 상상력, 즉 현재 우리의 환경 밖에 있고 심지어 실체가 아닐 수도 있는 일단의 대안적 개념과 경험을 탐색할 수 있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그 능력을 활성화한다.

외부 세계로부터 빛, 소리, 형태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여, 노을, 교향곡, 집 같이 그것에서 의미를 찾는 지각과 반대로, 상상에서는 그 과정이 역전된다.

우리가 읽는 단어를 그것이 의미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우리는 심상이 기억으로부터 창조되는 내적 세계에 산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집'이라는 단어를 읽고, 기억 속에서 집에 대한 표상을 떠올린다.

문학이 활성화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 즉 지각과 기억의 복잡한 얽힘인데, 이는 즐거움을 주는 잠재적 창의성을 일깨워 준다.

작가는 청사진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문학의 많은 방을 짓는 것은 독자이며, 만족감을 주는 다른 어떤 활동과 마찬가지로, 문학은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만족시킨다.